

음악영재 판별과 교육

고려대 태진미

I. 음악 영재성

1. 음악 영재성의 개념

1) 음악 영재의 개념과 음악적 성취

영재 교육 진흥법(1999)에 제시된 영재아 정의¹⁾를 음악 분야에 적용해 볼 때 “음악 영재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음악 영재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 재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음악 영재를 판별한다는 것은 결국 타고난 음악적 잠재력을 가진 자를 판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타고난 음악적 잠재력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잠재력이 충분히 계발되어 가시적으로 어떤 구체적 음악적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잠재력이 구체적으로 계발되지 못해 미성취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영재아의 범주 속에는 충분히 가시적으로 음악적 성취를 이룬 사람과 구체적으로 음악적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음악적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일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음악 영재성의 개념은 지나칠 정도로 음악적 성취에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음악 영재 교육을 위해 음악 영재성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 정립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음악 영재성에 대하여

선천적인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이 뛰어난 사람이 음악 영재라면 음악 영재성의 본질은 곧 선천적 음악적 재능과 음악적 잠재력이 될 수 있다.

1) 영재 교육 진흥법. 법률 제 6,215호(2000. 1. 28. 공포)

그런데, 여기서 선천적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은 ‘성취’로의 방향성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음악 영재아 중에는 선천적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음악적 성취를 이룬자와 아직 미성취 상태로 잠재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 모두 ‘뛰어난 음악적 성취’의 목표를 향해 그 재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 영재성이란 “뛰어난 음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선천적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높은 음악적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ability)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능력들을 진단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음악 영재성 판별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높은 음악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의 능력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토대로 후천적 교육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 능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음악 영재성을 이루는 하위 능력들 중에는 선천적 재능과 더불어 후천적 교육을 통해 탄생된 구체 능력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3) 음악 영재성의 하위 능력(ability)

성공적 음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음악적 재능은 ‘음악성’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데, Teplov는 “음악성이란 타 분야 활동에 필요한 재능이 아닌 바로 음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능의 조합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고, 그 재능이란 주로 음고 지각 능력(선율 지각, 화성 지각, 라드 지각), 리듬감(장단, 율동성), 음색, 셈여림 지각 능력, 연주, 표현 능력, 창작 능력 등 이라고 말할 수 있다.²⁾

그는 음악 활동에 필요한 특정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성 이외에도 음악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일반적인 재능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그 일반적 재능은 바로 창의적 상상력, 주의력, 영감, 창의적 의지, 자연에 대한 감정 등이라고 하였는데, 풍부한 일반적 재능과 특별한 음악적 재능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음악 영재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음악 영재성은 음악성의 개념에 비해 좀더 확장된 종합적 개념이라고 밝혔다.³⁾

한편 학자들마다 음악 영재의 특성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예들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2) Б. М. Теплов. Психология музык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 Избр. труды. 1985. В 1т.

3) 태진미, 5-6세 유아의 노래 창의력 발달을 위한 심리- 교육학적 조건 연구, 러시아 국립 사범대, 2002

<표 1> 음악 영재의 특성

<p>Teplov, 1985</p>	<p>1. 음악적 재능 - 음고 지각력 뛰어난 음 높이, 선율, 화성, 조, 라드 감각 - 리듬감 음 길이의 장단 구별, 리듬의 율동성 인식이 우수 - 음색, 셈여림 변별, 지각 능력이 우수 - 탁월한 연주 능력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과 창작 능력</p> <p>2. 일반적 재능 주의력, 이해력, 사고력, 해석 능력, 인내력, 의지, 영감, 자연에 대한 풍부한 감정, 창조적 동기, 음악 활동에 대한 열정이 있다.</p> <p>3. 각 재능의 상호 조화</p>	
<p>Karnes, 1986 일리노이주 RAPYHT 프로그램</p>	<p>음악 활동에 강한 관심 음악적 분위기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 짧은 리듬의 형태는 쉽게 반복 음정을 정확히 맞추어 노래 짧은 두 개의 리듬 형태가 유사한지 상이한지 변별 리듬이 비슷한 노래 구별 정확한 선율 회생 능력 높고 낮은 두개의 음 식별 예리한 선율 지각 능력</p>	
<p>성 경희, 1993</p>	<p>음악의 요소에 대한 변별력과 기억력 유연하고 독창적인 사고, 융통성있고 확산적인 사고 높은 감수성과 직감력, 풍부한 상상력 강한 집착력, 지속력, 인내력, 높은 학습 의욕, 자신감, 독립성, 자율성 리더십, 건강함</p>	
<p>J a c o b Javits 영 재 교육 프로그램, 1997</p>	<p>Renzulli의 이론을 기초로 기능(Skills), 동기(Motivation), 창의성(Creativity) 영역에서 음악 영재성 정립 1. 기능: 뛰어난 리듬감, 청지각, 신체 협응 능력 2. 동기: 음악 활동에 대한 열의, 집중력, 인내력 3. 창의성: 표현성, 작곡 및 즉흥 연주</p>	
<p>김 정휘 1997</p>	<p>음에서의 미세한 차이 지각 선율을 쉽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재현 음악 활동에 계속적 관심 소리나 음악을 통해 감성과 정서 표현 독창적인 노래 만들기</p>	

	음악에 맞춰서 무용이나 몸동작 즐기기	
미국 Nebraska 주 교육청, 1998	음악에서의 미세한 차이(고저, 음량, 음색, 지속 시간 등)를 지각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멜로디를 쉽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 음악의 리듬에 대해 예민함을 보인다. 음악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소리나 음악을 통해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독창적인 곡조를 만들어 낸다. 음악적 감각에서 정서적이고 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수 있 다. 음악에 맞춘 무용과 몸 동작을 즐긴다.	
Winner & Martino, 2000	음악 소리에 대한 흥미 음악적 기억력 완벽한 음감 새로운 음의 배열 방식을 고안해 내는 음악적 생성력 음악적 표현력	
Harouton ian, 2000	음의 지각력과 분별력 메타 인지 창의적인 해석 능력 연주 활동 동기	

4) 음악 영재성의 구인

제시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음악 영재의 특성에 관하여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재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으로 형성된 능력으로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능력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탁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 능력들 중에는 음악적 능력 이외에도 음악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반적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음악적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단순히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뿐만이 아니라 음악적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터득되는 능력으로 성공적 음악적 성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음악 영재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음악 영재성의 하위 요인으로 보고 그 능력들을 분류하고자 몇 가지 범주의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일찍이 Renzulli는 영재성을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및 과제 집착력 등의 3원고리 모형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근거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영재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음악 영재성에도 적용해 보면, 음악 영재성은 음악 분야의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음악적 창의성 및 과제 집착력이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따라

4) Renzulli, J. S.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n, 1978

서 음악 영재성을 성취하기 위해 음악 분야의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및 높은 과제 집착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연방 정부에서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영재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영재성의 작동 모델⁵⁾에 의하면 영재성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을 크게 도구적 차원의 능력과 정의적 차원의 능력으로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도구적 차원의 능력이란 영재성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구적인 능력이라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높은 지적 능력과 더불어 창의적 능력을 도구적 능력으로 범주화 하고 있으며 정의적 차원의 능력이란 렌줄리가 제시했던 ‘과제 집착력’과 같이 영재성 성취를 위해 필요한 정의적 차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따로 구별하던 하지 않던 두 능력은 영재성 발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됨에는 틀림없고 좋은 도구적 능력에 정의적 능력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음악적 영재성이 탁월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양한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음악 영재성의 구인을 범주화하고 크게 도구적 차원의 능력을 ‘음악적 재능’과 ‘일반적 재능’으로 분류하고 음악적 재능 속에 음악적 지능과 음악적 창의성을 모두 포함시켜 음악적 재능으로 묶고 음악 영재성 성취를 위한 도구적 차원의 능력과 정의적 차원의 능력으로 구분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⁶⁾

가) 도구적 측면

(1) 음악적 재능(음악적 지능 + 음악적 창의성)

- 음고 지각 능력
음높이 식별, 선율 지각, 변별, 재생 능력, 화성, 조, 라드 감각
음악적 기억 능력과 변별력
- 리듬감
소리의 장단 구별, 박 체감, 리듬의 율동성, 변화 체감 능력
- 음색, 셈여림 변별, 지각 능력
- 연주 능력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음악적 표현 능력
- 음악 창작 능력
창의적 감상 능력(이해, 해석), 창의적 연주 능력(노래, 악기, 신체 표현)을 나타냄,
창작 능력(노래 창작, 즉흥 연주, 작곡)
- 뛰어난 음악적 확산 사고력
음악적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2) 일반적 재능

- 뛰어난 기초 능력(주의력, 집중력, 이해력, 통찰력, 사고력, 해석 능력 등)
- 뛰어난 학습 능력
- 뛰어난 적용 능력(원리 파악, 적용, 질서, 규칙 발견 능력)

나) 정의적 측면

- 인내력, 의지, 영감, 창조적 동기, 음악 활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 애착, 일관성, 지속성, 높은 성취 동기와 집착력, 적극성, 자발성, 안정되고 풍부한 정서

5) 영재성의 작동 모델, 러시아 연방 정부, 1998

6) 태진미, 5-6세 유아의 노래 창의력 발달을 위한 심리- 교육학적 조건 연구, 러시아 국립 사범대, 2002

다) 도구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하위 재능간 상호 조화

II. 음악 영재성 판별

1. 음악 영재성 판별

음악 영재성은 음악적 재능과 일반적 재능이 조화를 이루어 훌륭한 음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잠재적 도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정의적 차원의 재능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⁷⁾ 따라서 음악 영재성 판별이라 함은 아동 속에 잠재된 위와 같은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들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음악 영재 판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준은 적용된다. 일회성 판별 보다는 반복적, 지속적 과정을 통해, 복합기준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하여 판별해야 한다. 구체적 영재 판별 단계나 도구에 있어서도 학자들에 따라 여러 의견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영재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단계들과 유의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악 영재성 판별 절차

성 경희(1993)와 최 은식(2003)은 아래와 같이 음악 영재 판별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⁸⁾
<성 경희, 1993>

연령 도구	유치원 수준 (5 ~ 6세)	초등학교 수준 (4 학년)	중등학교 수준 (중 1, 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사의 평가 가치 - 학교외 교사의 추천서 (학원, 개인 레슨, 기타) - 부모의 관찰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 교사의 평가지(창의적/ 정의적 특성 포함) - 음악 교사의 추천서(창의적/ 정의적 특성 포함) <학원, 개인 교습 또는 교과 전담 교사> - 학교 성적 - 부모의 관찰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교사의 평가지 (창의적/ 정의적 특성 포함) - 개인 교습 교사의 추천서 - 학교 성적 - 담임 교사의 평가지 (창의적/ 정의적 특성 포함) - 부모의 관찰 정보 - 동료의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적성 검사 - 실기 테스트 (가능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적성 검사 - 창의성 검사 - 음악 실기 테스트 - 학교 성적 - 개인 의견서 -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적성 검사 - 음악 성취도 검사 - 창의성 검사 - 음악 실기 테스트 - 학교 성적 - 개인 의견서 - 면담

7) Б. М. Теплов. Психология музык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 Избр. труды. 1985.

8) 김 춘미, 예술 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 교육 개발원, 2003 p.53 재 인용

<최 은식, 2003>

발굴 ---	기초 검사 ---	음악성 검사 ----	창의성 검사 ----	적응 검사
부모	면담	음악적성	음악 창의성	학교 생활
교사	교사 면담	검사	검사	적응 검사
자신	학생 면담	실기 검사	일반 창의성	
동료	관련 자료	기초 음악성	검사	
국가수준	평가(작품,	검사		
음악적성	비디오,			
검사접수	테이프			
국가수준				
음악성취				
검사접수				
연주 및				
창작품				
평가				

성 경희(1993)의 판별 모형에서는 각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 판별 절차를 제시한데 의의가 있고 최 은식(2003)의 모형은 다단계로 다양한 판별 정보원을 수합해 음악 영재를 판별하는 절차를 제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Teplov는 음악 분야의 영재성에 있어 가장 주된 핵심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이라 밝혔고⁹⁾ Gordon 역시 음악성과 지능지수와 관계가 5 ~ 10%정도의 낮은 상관이 있음을 밝히며¹⁰⁾ 음악 영재성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지능 지수를 크게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시사한바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음악 분야의 주된 특성을 살려 탁월한 음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거들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판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단계 : 음악적 잠재력 파악 단계
- 2단계 : 음악 성취도 진단 단계
- 3단계 : 심층 면접
- 4단계 : 검사 결과 수합
- 5단계 : 음악 영재 교육 프로그램 투여 및 관찰 단계
- 6단계 : 최종 선발 단계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단계 : 음악적 잠재력 파악 단계
 - 학부모, 교사, 동료 또는 자신의 추천
 - 음악 적성 검사
 - 음악 감수성 및 동기 검사
 - 음악 창의성 검사(즉흥 노래, 연주, 반주 붙이기, 변주 등)
- 2단계 : 음악 성취도 진단 단계

9) Б. М. Теплов. Психология музык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 Избр. труды. 1985. В 1т.

10) E. Gordon. "Aptitude for Music-is a Human Born with It or is It Learned" 음악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 한국 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자료

- 전공 실기(구체적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는 생략)
- 기본 실기 및 기본 지식
(시창, 청음, 피아노, 음악 감상, 음악 지식 등)
- 3단계 : 심층 면접
 - 성취 동기, 지원 동기, 자질 등
- 4단계 : 검사 결과 수합
 - 지능이나 학업 성적, 사회성, 사회성숙도 등을 참고해 모든 결과 수합
- 5단계 : 음악 영재 교육 프로그램 투여 및 관찰 단계
 - 아동의 ZPD(근접 발달 영역)을 파악, 관찰, 판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운영 기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파악
- 6단계 : 최종 선발 단계

2) 판별 시기

음악 영재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일찍 나타나고 또 일찍 판별해 좋은 교육을 조기에 제공해야 음악적 재능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한편 음악 영재의 판별은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타고난 재능의 수위가 나이를 먹을수록 떨어진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 영재의 경우는 만 3세를 판단 시기의 최저점으로 보는 것이 유력한 학설로 되어 있다.¹¹⁾

결국 음악 영재성을 진단하는 시기는 만 3세 이상부터 가능하되 가급적 이른 시기에 판별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음악 영재 교육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운영 기관별로 나름대로 음악 영재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음악 영재아를 선발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별로 선발 시기와 영재 선발 분야를 예로들면 아래와 같다.

<표 2> 외국의 대표적 음악 영재 학교별 선발 개요

기관명	선발연령	선발 분야	선발 수준
줄리어드 음악대 부설 예비학교 (미국)	나이제한 없음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하프, 기타, 타악기, 하프시코드, 오르간, 작곡, 성악	초보자는 입학 불가 상당한 수준의 음악 성취를 보이는 학생
피버디 음악대 부설 예비학교 (미국)	신생아~대학이전	오케스트라, 작곡, 기타, 하프, 재즈, 음악사, 타악기, 피아노, 현악, 이론, 성악, 목관, 무용+ATY(Arts for Talented Youth) 병행	입문 과정부터 전문 과정까지 포함
베제르부르그 국립음악원 부설 음악 영재학교	유아~고등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목관, 타악기, 합창지휘, 작곡, 이론	잠재력 수준(유아)~상당 수준의 음악 성취를 보이는 학생

11) E. Gordon. "Aptitude for Music-is a Human Born with It or is It Learned" 음악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모색, 한국 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p 73~84, 김춘미, 예술영재 판별에 관한 기초 연구 p13 재인용, 2003.

(러시아)			
리스트 음악 원 부설 영 재 코스 (헝가리)	8~13세 아동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상당한 수준의 음악 성취를 보이는 학생

<표 3> 국내 대표적 음악 영재 기관별 선발 개요

기 관 명	선발연령	선발 분야	선발 수준
한국 예술 종합학교 예 술실기 연수 과정	초등~ 고등	초등부(기악), 중등부(기악, 작곡), 고 등부(성악, 기악, 작곡, 지휘)	높은 수준의 음악적 성취를 보이는 학생
예술의 전 당 음악 아 카데미	초등 ~ 중등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비올 라, 클라리넷, 작곡(초등만)	상 동
예술 중, 고 등학교	중등 ~ 고등	피아노, 작곡, 성악, 바이올린, 비올 라, 첼로, 베이스, 하프, 기타, 목관, 금 관, 타악기, 국악기 등	상 동
교육청 산 하 음악 영 재 학급	중등 ~ 고등	작곡, 성악, 기악, 국악 등	높은 음악적 성취를 보이는 학생 뿐만 아 니라, 음악적 잠재력 이 우수한 자 포함

외국은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
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비해 우리 나라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전문 음악 교육의 문턱이
매우 높고 초등 이후에나 전문 교육 기관에 입학 가능하며 판별 자체가 구체적 음악 성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실제적으로 입학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교육청 산하 음악 영재 학급의 경우는 재능이 있으나 구체적 음악 교육을 받지 못
했던 음악 재능아들도 선발해 그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 한편 이 제도
역시 중등 연령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매우 소수의 학생들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부모의 전폭
적 지원이 없는 많은 음악 재능아들이 그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흔히 있
다.

3) 판별에 사용되는 검사들

학부모, 교사, 자신의 추천 및 평가, 체크리스트 *

음악 적성 검사 *

음악 감수성 및 동기

음악 창의성 진단

전공 실기 *

피아노, 화성학, 시창 청음 등 음악 기본 지식 *

학교 성적이나 생활 기록부 등

* 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검사들임.

4) 판별 절차와 도구 선정 시 고려 사항

- 연령
- 전공
- 영재성 발현 유형(성취, 미성취)
- 체계적 전문 교육 경험의 유무
- 영재성 발현 정도(평균 이상, 고도, 기능과 창의성의 발현 및 조합 수준)
- 영재 교육 운영 기관의 방침 : 교육청, 예종, 음악 영재 아카데미, 예종 고 등

한편 판별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선정은 대상의 특성이나 영재 교육 기관의 운영 방침과 제공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영재 선발과정에서 선발 대상자에 따라 판별 과정을 달리하게 되는 대표적 사항을 예로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판별에 적용되는 검사들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어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전공 악기 연주 수준이라던지 구체적 음악적 지식과 표현 능력이 아직 길러지지 못했을 수 있으므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음악 적성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한편 초등 이상 연령의 경우 전공 분야의 연주도 중요한 판별 준거로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전공 분야에 따라 핵심적으로 필요한 재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들어, 음악 분야 중에서도 작곡 분야의 경우는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충분히 우수한 지적 능력이 뒷받침 될 때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또 바이올린 분야의 영재는 금관이나 타악기 연주자들에 비해 훨씬 우수한 음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전공 분야에 따라 핵심이 되는 재능에 대한 검사 결과 수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재성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검사 내용과 결과의 수합 방식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취 상태의 음악 재능아의 경우는 음악 성취를 진단하는 검사를 적용하기 보다는 선천적 음악 적성을 진단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넷째, 체계적 전문 교육 경험의 유무를 들 수 있는데, 음악 분야와 같이 구체 기능을 연마하는 분야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뭔가를 표현은 하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해 잠재력은 우수하나 실제 음악 성취도가 매우 낮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별시 선천적 음악 재능이 우수하나 그 성취도가 낮은 경우 체계적 전문 교육의 부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음악 영재 선발 과정에서 체계적 전문 교육 경험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영재성 발현 정도에 따라 영재 판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음악적 재능 속에도 그 영재성의 수준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지적 분야의 영재성을 논할 때 학생들의 지적 영재성 수준이 평균 이상 또는 우수 영재, 최상의 영재, 고도 영재 등등 영재성 발현의 ‘급’(level)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역시 음악 분야에서도 음악적 재능을 가졌지만 그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과정에서는 대상의 수준에 따라 검사 수준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섯째, 영재 교육 운영 기관의 방침에 따라 영재 선발 절차와 적용하는 검사 도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예술 종합학교와 같이 전문 음악인을 배출하는 콘서바토리 개념의 부설 영재 교육 기관의 경우와 교육청 산하 영재 학급의 영재 교육 운영 방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대상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자 계획하느냐에 따라

서 선발 과정과 교육 과정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 음악 영재 선발 과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간략히 적어 보았다. 한편 음악 영재성에 대해 전문가마다 다른 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영재 교육 기관에서는 어떤 아동을 구체적으로 음악 영재라 볼 것이며, 어떤 재능을 음악 영재성의 구인으로 볼 것인지를 정해 판별 심사 과정에서 채점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악 영재 판별 과정에서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음악 영재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합의된 입장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 그에 준하는 선발 과정 절차와 채점 양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음악 영재 교육

1. 음악 영재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음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해 왔다. 각 시대를 거치며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음악 역시 적지 않게 바뀌었으며, 뛰어난 음악영재들은 그 시대 시대마다 새로운 음악 문화의 창조자들 이었다. 기계 문명과 함께 공존하는 정보화 사회의 현대 음악은 분명히 과거의 음악과 다른 현재의 삶을 음악 속에 반영하고 현대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음악 영재 교육에 있어서도 과거의 음악 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음악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음악의 단순한 재현자로서의 음악가가 아닌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의 삶을 음악으로 담을 수 있는 창의적 음악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과거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음악 문화의 사절단으로서의 창의적 음악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우리 나라 음악 영재 교육의 특수 배경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는 참으로 독특하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악 전공자들이란 우리나라의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서양 음악의 전공자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전통 음악이 현재의 서양 음악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음악 문화가 크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음악 교육에서 주력해야 하는 부분이 서양에 비해 훨씬 복잡한 편이다. 예를들어, 우리 나라 음악 재능아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기획한다면 아래의 모든 내용을 통합 효율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음악적 기초 기능
- 서양 음악 교육
- 국악 교육
- 현대 음악 교육
- 예술 통합 교육
- 일반 교과

우리의 음악 재능아들이 그들의 재능을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하되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들 교육자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음악 영재 교육 과정에서는 위의 6개 범주의 교육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연령별 영재 교육의 기본 방향

가) 영 유아기

- 교육 기회를 넓고 다양하게 부여
- 포괄적 음악 교육(음악적 감수성, 음악적 표현력 기르고 다양한 음악 접하기 등)
- 솔페지, 음악 놀이, 창의 활동, 전공, 피아노 교육 등
- 우리 민요나 창작 국악 동요 등 국악 문화를 지속적 체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 일반적 지적 능력 기르기, 사회성 기르기

나. 초등 ~ 고등기

- 피라미드 형으로 영재 교육 수혜자를 점차로 줄이고 과정을 전문화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묶인 혼합제 운영이 이상적
(일반 교과목의 속진이 필요하므로, 행정상 편의를 위해)
- 개방적 학습 분위기
- 풍부한 음악 교육 환경의 제공(서양음악, 국악, 현대음악, 세계의 민속 음악 등)
- 창조적인 음악 활동의 장려, 수용 및 강화
- 음악적 표현력, 연주 경험, 의사 소통 능력 기르기
- 자아 주도적 학습, 성장 장려
- 일반적 지적 능력 기르기
- 사회적 협력, 바른 리더쉽, 공동체감 기르기
- 평생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 능동적 전문인으로서의 성장

IV. 글을 맺으며

우리나라 음악 영재 교육은 이제 막 그 이론적 기초를 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음악 문화의 배경 속에 태어난 음악 재능아들이 그들의 선천적 재능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세계 속에 참된 문화적 가치를 심을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편 실기 위주의 음악 영재 교육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사실상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영재 교육의 취지에서 출발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음악 분야의 뛰어난 전문인을 육성하는 일종의 기능 교육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 증거로 대표적 음악 영재 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준거로 내세운 것이 일제히 뛰어난 음악적 성취 결과였으며 잠재력이 우수하나 가시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전혀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시적으로 뛰어난 음악적 성취는 반드시 전문적 음악 교육이 뒷받침 될 때에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음악적 잠재력을 타고난 아동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부모가 비싼(?)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체계적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전문 음악 교육을 받기 위한 입학 지원 마저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음악 영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성취 위주의 음악 영재 교육은 영재 교육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다운 영재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영재 교육의 근본 철학과 취지에 대해 많은 전문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음악 영재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영재아를 선발하는 판별 절차와 도구들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하며 판별된 다양한 유형의 음악 영재들을 위해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때 비로소 우리 나라에 태어난 많은 음악 재능아들이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여겨진다. 이상으로 음악 영재 판별과 교육에 대해 정리하면서 부족하지만 이 글이 한국 음악 영재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맘으로 글을 맺는다.